

무사고 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VIII)

金元夏
〈교통신문·취재부장〉

61. 매시 40km 이상은 이상상태이다. 인간은 원래 시속 4km의 동물이다.

인간의 속도에 대한 생리적 한계는 대략 매시 40km까지다. 그 이상은 무리이며 순응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은 원래 시속 4km 정도의 환경에서 제반 기능이 정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물인 관계로 그 이상의 속도일 때에는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인간의 제반 기능의 능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2. 직선도로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교통량이 적고 평탄한 직선로는 운전자로서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이나 그 직선로 주행거리가 길게 지속되면 소위 직선홀(直線惚)에 빠지게 된다.

비교적 편안하고 단조로운 기분으로 커브나 구불구불한 길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직선홀의 간단한 회복방법은 때때로 엉덩이를 움직여 앉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다.

63. 능력에 부합된 속도로 주행할 것.

몇대의 차량이 한 줄로 이어져 주행할 경우에는 그 흐름에 편승하여 주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자기의 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무리라고 느껴지면 하위차선으로 차를 비켜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흐름에 편승하여 주행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알맞은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미러를 통해 자기차 뒤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따라오고 있으면 길을 비켜주는 것이 올바른 주행방법이다.

64. 대향차의 방향을 잘 살필 것, 정면 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시가지에서 교차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향차에 대한 주의를 등한히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교외나 비시가지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 더욱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대향차와의 정면충돌인 것이다.

이쪽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모한 앞지르기나 줄면서 운전하는 대향차가 언제 이쪽으로 뛰어들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대향차가 접근하면 그 상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5. 앞지르기는 명을 재촉하는 것이다.

앞이 잘 보이는 직선로에서만 할 것.

앞지르기는 위험이 많은 행위이다. 정면충돌 사고의 대부분이 앞지르기의 실패로 인한 것이며 사고시는 거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될 수 있는 한 앞지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방어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앞지르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여 앞지르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앞이 잘 보이는 평탄한 직선로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실행해야 한다.

66. 「앞지르기 금지」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정하지 않는다.

앞지르기 금지의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측 부분으로 나가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표시가 없는 곳이라도 도로조건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의 곡각 부근, 언덕의 정상 부근,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터널내, 교차로내 및 직전 30m이내, 횡단보도 및 직전 30m, 철길 건널목 및 직전 30m 이내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67. 「앞지르기 신호」는 진로변경의 신호부터 확실히!

앞지르기 신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최근에는 앞지르기를 하면서 신호 조차 보내지 않는 차들이 많아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앞지르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진로변경의 신호이며, 따라서 진로를 변경하기 3초전부터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신호를 정확하게 실행하면 자연히

여유있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68.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진로를 변경하라.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단숨에 좁힌다든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가 있다. 이 또한 위험한 앞지르기 방법인 것이다.

진로변경도중 대향차가 있음을 감지했을 때에는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때문에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즉, 앞차와는 대체로 차 2대분의 공간을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안전하다.

69.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중지하는 용기를 가져라.

앞지르기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해도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진로를 변경하는 찰나 새로운 위험이 발견될 때도 있다. 때문에 앞지르기를 결정하는 동시 위험을 감지하면 곧 중지한다는 결의도 필요하다.

위험을 알면서 타차의 피양을 기대하며 굳이 감행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70. 앞차의 측방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확인하라.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서 속도를 변경한 후에는 앞차의 측방을 나란히 하여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얼마쯤은 빨리 앞지르기를 끝내려고 자연히 과속을 하게 된다. 이런때 감속해야 할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며 Spin할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속도계로 속도를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